

LG에너지솔루션 제4기 정기 주주총회

CEO Letter to Shareholder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김동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늘 변함없는 신뢰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전동화 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배터리 제조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이 사업의 기반을 다지며 양적으로 성장해 온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깊이 있는 몰입과 강한 실행력으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초석을 다진 엔솔 1.0을 지나 한 걸음 더 도약할 엔솔 2.0을 앞둔 지금, 지난 한 해 당사가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 엔솔 1.0

출범한 지 3년만에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생산능력과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시장을 선도하는 소재 기술과 제조 공정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IPO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약 500조 원에 가까운 수주 잔고를 확보하는 등 규모의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포트폴리오도 구축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GM, 스텔란티스, 혼다와 대규모 JV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는 토요타와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차그룹과 두번째 합작법인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글로벌 TOP9 완성차 고객들과 손을 잡으며 세계에서 주목받는 회사로 도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해 왔으며, 특히 2023년은 북미 중심의 EV 수요와 IRA Tax Credit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33조 7,455억 원이라는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2조 1,632억 원¹⁾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2.1%p 개선되었습니다.

1) IRA Tax Credit 수익 인식 포함

질적 성장을 위한 몰입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엔솔 2.0' 시대

올해는 그간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내실을 단단히 다져 나가며 외부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 리더십 구축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사업 준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질적인 성장을 위한 몰입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리더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서 그동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값진 경험을 축적하고 자산화해왔습니다. 이미 강점을 확보한 프리미엄 제품군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보급형 제품군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고객들에게 차별화 된 가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외부 리스크에 흔들림 없는 구조적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신기술과 신공정 도입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분투자, 장기공급 계약 등으로 재료비를 효율화 하는 한편, 자동화 공정 확대로 고정비를 절감하여 구조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가오는 기회와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해 미래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사는 전고체,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질과 Cost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신공정 도입을 가속화하여 미래 기술 리더십을 선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리사이클 사업 역량이 우수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 거점별로 Closed Loop를 구축하고, 신규 수익 모델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LG에너지솔루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을 선도해온 수많은 성공 경험과 무한한 잠재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으로 때로는 도전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히려 이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고 차분하게 내실을 다져 배터리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가치 있는 결과로 보답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김동명



